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8월 24일 (제75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서울시청광장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 고맙고 사랑한다. 너희들이 있어 든든하고 감사하다. 우리가 알 것은 무슨 일이든 고민하고 번뇌하며 기도한 것만큼, 명작과 졸작으로 갈리며 성공과 실패로 갈린다는 것이다. 우리 항상 명작을 추구하여 왔고, 늘 명작을 이뤄냈다.

인생에서 후회보다 더 큰 아픔은 없다. 후회는 언제해도 항상 늦은 것이지.

이번 교황 방문과 관련된 천주교 사건은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한 치 오차가 없는 진행과 광화문대로까지 들어찬 인파, 그리고 빈틈없는 기획에 나는 격동했다.

그러나 나는 사과가 큰 것도 좋지만, 작아도 맛이 있다면 주님이 잡수시며 기뻐하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 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과 남이 갖지 않은 너희들의 희생정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6월 7일 메인스타디움 집회때도 우리는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었지. 비가 오다가 예배가 시작될 때 구름이 갈라지며 화사한 햇살이 내리비치는 극적인 하나님의 연출까지 더해져 정말 불후의 명작을 남겼지. 이번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주관자도, 후원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앞으로 2주 남았다. 짧다면 짧고, 충분하다면 충분한 시간이다. 이 시간동안 우리 최선을 다해 불후의 명작을 연출해보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도 힘껏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위험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High risk, high glory!). 이것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다. 우리 담대하게 나가자. 해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힘껏 해보자! 사랑하고 사랑한다.

2014년 8월 18일 朋友 이초석 목사

가자, 서울시청광장으로!

8주간의 기도원 개보수 공사, 4주간의 수련회 및 산상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공사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수련회 및 산상집회에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 봉사해준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다시 또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소유욕이 아닌 성취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지나간 역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위해 달려야 한다.

이제 서울시청광장이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가 오는 9월 8일

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다 피바다가 될 겁니다. 내 손자들도 군에 있습니다. 그들도 전쟁이 나면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길 원하는 사람들만 동참하세요. 이 나라는 어떤 정치인의 나라도 아니고, 어느 기업가의 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이번 성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의 도움 속에 뜻있는 자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휴전선이 무너지는

1장에 잘 나와 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잠 1:24~28).

혜방자들에 관하여는 굳이 언급하기조차 불필요함을 느낀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



오는 9월 8일 추석날,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열릴 서울시청광장

추석날 오후 3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목사님은 산상집회 첫 주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셨다.

“여러분, 나는 지난 20년 간 지구를 100바퀴 이상 돌며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만, 정말 국가가 없는 백성은 국가가 잘 사는 개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민족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9월 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추석날이지만 나라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려 합니다. 왜냐고요? 전쟁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총력 전도할 때도 택함 받은 자들이 “나도 가자 너도 가자”고 천사와 더불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매진합시다.”

이제 2주 남았다. 2주 가운데 하루씩 금식하며 이 성회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총력 매진하길 바란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의 자서전을 쓰며 언젠가 그날에 반드시 주 앞에 선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역사의 한 가운데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반드시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날이 온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식의 방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지 잠언

막고서야 어찌 살기를 바랄까?

그러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으로 응답해주실 것이다. 모두가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하나님의 일은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모두가 자원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에 총력 매진하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평화통일 기도성회

9월 8일(추석)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7~14)



장성한 자여! 천사를 부려라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입니다. 사람처럼 육체나 성별은 없지만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사건이 무려 170회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에 대한 명칭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새벽별, 천군, 사자, 스랍, 그룹, 순찰자, 부리는 영, 미가엘, 가브리엘, 아바돈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천사가 지음을 받은 것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함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아나뇨”(히1:14).

천사는 승배의 대상이 아닙니다(골2:18).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것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일 뿐입니다(히2:7~9).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천사는 뛰어난 보디가드라고 말합니다. 보안요원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하면 나팔을 들고 날개를 단 연약한 천사를 상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천사를 불처럼, 바람처럼, 군사처럼 사용하십니다(히1:7). 돕는 자가 연약해서야 어떻게 돕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천사 하나가 185,000명을 물리쳤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는 강합니다.

천사들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사역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다니엘서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9~12).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분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경호원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일러 무엇 하겠습니까?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34:7).

다니엘은 삼십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지켰다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되었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기에 이튿날 아침 일찍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단6:21~22). 천사가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건졌고(단3:24~25),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쇠고랑을 풀어 주고 간수의 눈을 멀게 해서 감옥에서 빼내주었고(행12), 사도행전 5장에도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천

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의 큰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야 왜 하나님이 저를 기도시키셨는지 알았습니다. 큰 아들 녀석이 사당동 지하철역에서 내리다가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에 빠져 끼였습니다. 지하철이 그대로 출발하면 이 아이는 죽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번쩍 들

어서 올려서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천사가

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

회 어느 자매가 시골 밤길을 가다가 불량배들에게 잡혀 오

다. 그 때 자매는 죽기 살기로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시공장에 박혀서 쓰러지고, 때마침 경찰이 지나가다가 그 자매를 구해줬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엄청 무섭습니다. 애들을 내보내기가 무섭지요. 그렇다고 경호원을 일일이 붙일 수도 없고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또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와서 나를, 내 가족을 위경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천사를 부릴 수 있는요? 아닙니다. 사람은 천사를 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들이라도 어릴 때는 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천사를 부릴 수 없습니다. 장성해야 아버지의 종이 아들의 종이 되듯, 천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2를 누르면 경찰이 달려오고, 119에 전화를 걸면 소방차나 응급차가 달려오듯 천사도 부르는 즉시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도울래야 도울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신 권세도 쓰지 못하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천사를 부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대기는 하고 있는데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래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여전히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꾀로 일을 이루려고 합니까? 당신의 지식으로, 과학의 힘으로 공야에서 매추라기를 얼마나 잡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일하게 해서 매추라기를 잡게 낫지 않았습니까? 또 당신이 재난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당신을 도우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천사는 엄청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계5:11). 그 천사를 부르십시오. “천사는 내 아이를 지킬지이다.”, “천사는 내 가정과 가족을 지킬지이다.”, “천사는 내 사업장에 사고는 나지 말지이다.”, “천사는 내 교회를 지킬지이다.”, “천사는 내 나라를 지킬지이다.”

저는 9월 8일 추석날 오후 3시, 서울시 청광장에서 개최되는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천사가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 덮지 않게 하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자들을 지켜 사고 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당신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부르십시오. 당신의 국가와 기업, 가정과 가족이 안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문제 앞에서 천사를 명하라 그들은 우리를 돕는 영이다

8장 16절에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아브라함 내외에게 애들을 계시해줬고(창18: 10), 사가라에게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으며(눅1:11~13),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눅1:30~31). 다른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총회장 이초석 목사

::객원컬럼::

::생각해봅시다::

성공적인 삶

1923년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로 일컬어지던 일곱 사람이 모였습니다. 일곱 사람의 재산을 다 모으면 미국의 국고를 능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25년 후에 이들 일곱 사람의 생애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 사람인 강철회사 사장은 파산하여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되어 죽었습니다.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두 번째 사람도 역시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홀로 죽었습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세 번째 사람은 잘못된 행위로 인해 감옥에서 여생을 보냈고, 미국 재무장관이던 네 번째 사람도 감옥에서 막 풀려나와 자기의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 스트리트의 금융그룹 회장이었던 다섯 번째 사람과 국제은행 총재였던 여섯 번째 사람은 자살로 삶을 마감했고, 부동산계의 거부였던 일곱 번째 사람은 자살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지면 성공적인 삶이 될까요? 우리 모두를 비통의 구렁텅이로 몰았던 세월호 참사의 꼭지점에서 있었던 사람이 인적이 드문 숲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2,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여 자식들에게 수백억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식들은 그 돈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호화롭고 풍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지금도 돈을 많이 받았다고 행복

해 할까요? 그의 일거수일투족과 죽음에 대해 온 나라의 매스컴이 총동원되어 보도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는 지금 저세상에서 자기의 명성에 대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을까요? 그는 전직 대통령, 장관, 외교관, 고위 공무원, 검찰, 금융가 등 권력의 핵심인물들과 직간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덕택에 간접적으로 권력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비호하던 자들이 지금도 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해 줄까요?

자신만을 위한 삶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결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명제는 이어령 선생님의 말을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 울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고 축하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편안하게 웃고, 남들은 모두 보내기 싫어 슬피 우는 인생. 이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우리 삶에는 가장 귀중한 것과 덜 귀중한 것,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남을 위해 삶을 마감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가져다주지 않을까요?

이관섭 장로
kslee@krri.re.kr

귀신아, 가라!

공동묘지 가까운 곳에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늘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공동묘지에서 가끔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정말 한밤중이면 귀신이 나타나는지 몹시 궁금한 마음에 부모님이 다 주무신 후에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정말 귀신이 있겠어?”

그러는 순간, 정말 눈앞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 귀신이 자기 앞으로 점차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정신이 아득해진 아이는 몸이 굳어버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 문득 주일학교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귀신을 만나거든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그러면 귀신이 도망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무슨 찬양을 불러야 할 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점점 다가오고...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찬양을 생각하다가 눈을 딱 감고 하나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바탕 웃으셨나요? 웃음은 여름철 시원한 냉수 같으니까 많이 웃으세요.

21세기에 귀신을 논하면 정신 나갔다고 하겠지만,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꿈에 귀신을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오직 ‘예수이름’으로만 나갑니다. 예수이름으로 귀신을 쫓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막16:17).

예수중심편집실

클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생수 같은 자가 되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29:22)



::To Be Succeed::

사랑, 그 위대한 이름

“항상 사랑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생후 9개월 만에 시력, 청력을 잃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고 속에 평생을 살아간 헬렌 켈러의 고백이다. 알려진 것처럼 그녀는 삼중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에 통달하고, 20세에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으며, 세계를 다니며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등 감동적인 삶을 살았다. ‘물’이라는 한 단어를 익히는 데만도 7년이 걸린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공적인 그녀의 삶 뒤에는 7세부터 이후 48년간을 헌신적인 사랑과 인내로 보살펴준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다. 그러나 아는가? 헬렌 켈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든 앤 설리번 자신이 시각 장애인이었으며,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와 동생을 잃은 충격으로 미치고 실명까지 하여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갇혀 있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이는 노년의 은퇴 간

호사 로라였다. 로라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관심과 사랑으로 앤은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시각장애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후 수술을 통해 시력도 회복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한 극한의 어둠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서 제멋대로 살아가던 헬렌 켈러를 품음으로 로라에게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었다. 남들의 만류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라는 이 한마디로 일축하며.

이렇게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또 다른 사랑과 인내를 일구어내어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 일컫는 헬렌 켈러의 삶이 탄생한 것이다.

반면 지난 1997년 탈옥하여 대한민국을 떠돌썩하게 했다가 2년여 만에 재수감된 신창원. 그는 말했다. 어릴 적에 ‘너 착하다’고 머리 한 번 쓸어주는 선생님 한 분만 있었어도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아직 청소년이었던 아들을 끝내 구속 수감시키라고 주장한 아버지와 돈 없는데 학교에 왜 왔냐며 집으로 돌려보낸 선생님에 대한 미움과 반항심은 결국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일그러뜨린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

처럼 사랑의 유무는 우리 삶에 정반대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주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자신을 팔 자임을 아시면서도 가롯 유다를 마지막까지 품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이셨다.

그렇다. 깊고 진실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초인적인 인내와 희생이 동반된다. 그 사랑은 화려하지도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게 하지도 않는다. 묵숨까지 바쳐 복음을 전하고 이 국땅에서 죽어간 선교사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땅에 꽃피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그 희생의 열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자.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달려 돌아가신 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여 사랑과 헌신의 씨앗을 뿌리자. 이것이야말로 영적 세계, 육적 세계에서 부패되지 않을 성공을 잡는 참된 길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1994년 11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복싱 헤비급 타이틀 매치가 펼쳐집니다. 45세의 도전자 조지 포먼과 29세의 챔피언 마이클 무어헤드가 맞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고 빠른 무어헤드의 승리를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포먼은 무어헤에게 골려가던 경기를 뒤집고 10회 극적인 KO승을 거두어 모든 복싱 팬들을 놀라게 합니다. 세계 복싱 역사상 유례 없는 최고령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사실 포먼은 그로부터 20여 년 전 이미 40연승 무패행진을 이어가던 젊은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당시 도전자였던 무하마드 알리에게 빼앗긴 역전패를 당하고 1977년 은퇴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고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짓고, 또 거리에서 마약과 범죄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 회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가 은퇴한 지 14년 만에 다시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올라 복싱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승리해야 할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이 있었고, 결국 불혹의 나이에도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드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c@naver.com

하하하 웃어보아요

평소에 당신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웃고 있나요, 인상 쓰고 있나요, 아니면 표정이 없나요?

무심코 짓고 있는 그 표정들은 차곡차곡 얼굴에 쌓이고, 그 얼굴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남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나이 마흔이면 누구나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지요.

어릴 때 우리는 모두 웃는 얼굴이었습다. 아이들은 하루에 3, 4백번이나 웃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웃질 않는다고 합니다. 웃는 아이가 웃지 않는 어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웃을 일이 없어서요? 사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웃음은 선택이기 때문이지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늘 짜증이 가득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기어코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고, 잘 웃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냅니다. 웃음과 짜증, 그 선택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지요.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세드 웬스테더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약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중 75%인 4만 가지 생각은 저절로 부정적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웃음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기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하지요.

다행히도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억지로 웃어도 위의 연구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가식 같았고, 그래서 무표정일 때가 많았지요. 그 땐 ‘첫인상이 차갑다, 다가가기 어렵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

졌는데요.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재미 없거나 썰렁해도 억지로 막 웃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웃음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잘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분위기도 좋아졌고요. 요새는 차가워 보인다는 말도 거의 듣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같습니다. 다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웃음은 옆으로, 옆으로 퍼져나가 누가 웃으면 나도 따라서 웃게 되고, 내가 웃으면 내 주변도 덩달아 웃게 되지요. 그러니 매일,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가족을 보며, 친구를 보며, 직장 동료들 보며 하하하 웃어 보세요. 그 웃음으로 인해 내 인생과 남의 인생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뀔 거예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나의 아버지!

오래전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집회 저녁예배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저씨로, 어렵기만한 시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었습니까?” 하시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지 못한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일어나보세요.” 하시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 말씀이 꼭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컧가에 툭툭거리는 시계 초침소리는 제 내면을 반영하듯 저를 계속 긴장시킵니다. 마치 ‘일어나야지! 왜 그러고 있어? 바로 너잖아!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 안됐잖아!’ 하면서 제 양심을 쫓쫓 찌르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옆에 앉아있는 구역식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성가대원으로, 교구에서는 조장으로 믿을 줄다고 인정받고 있는데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며 버틴 거지요. 그 순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라는 목사님의 단호한 한마디 말씀이 저를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목사님은 일어난 성도들에게 “진실 되게 일어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평생 저들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축복해주셨는데, 그때부터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고 늘 함께 계심이 느껴지며 따뜻함이 만져집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저의 공급자이고 위로자이며, 간섭자이고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하는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Good News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 심한 갈증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작열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 건조한 모래언덕을 힘겹게 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앞에 야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 가득한 오아시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해.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어.”

얼마 후 사막을 횡단하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그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상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를 이해할 수 있나? 이렇게 물이 가까운 곳에서 죽다니 말이야. 바로 앞에 있는 야자 열매는 입도 대지 않았나 보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신기루처럼 생각하고 혼자 힘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헤매다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7:37~38).

세상의 것으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같은 것들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마시고 또 마셔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달프고 지친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예수님께로 나오면 인생의 모든 죄와 고통의 짐을 벗기시고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깨끗이 해결해주시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전개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신기루가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자녀의 결혼관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한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또 다른 가정을 만드는 일이니만큼 뚜렷한 주관을 갖고 결혼에 임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 항상 불안하고 못미더운 자식 일지라도 나이가 들면 내 품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자녀들이 평생을 일구어 나가야 할 가정에 근간이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

을 주어야 한다. 살림살이의 규모와 직장 문제, 양육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기반 등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결혼 후에 당면할 일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물론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곳곳하게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즉흥적인 행동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예식에 필요한 지출문제도 자녀들이 고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생에 단 한번이라는 이유로 무계획과 과소비 지출을 하기 쉽다. 자녀들의 사회활동의 상황과 경제적 수준에 맞는 계획성 있는 예식준비로 거품이 없는 결혼예식을 진행한다면, 그것을 시작으로 알뜰한 살림살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혼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크리스천답게 배우자의 신앙 문제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겉으로 포장된 기독교인의 자세만으로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시간이 더디 걸려도 배우자의 완전한 기독교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결혼 이후의 안정된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 외에도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녀의 결혼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자세를 깊이 숙고해보는 것이 좋겠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